

四象人辨證의 擴充을 위한 研究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病變篇 第五統】을 중심으로 -

李 義 柱\*

Abstract

A Supplementary Study for Sasangin Identifying

Lee Eui-ju\*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

**Objectives** ; A Supplementary Study for Sasangin Identifying is based on Chapter Pathophysiology Part V of 【Donggyi Soose Bowon Chobonguan】. And I try to explain that with Sasang Constitutional Theory. After all I want this study given the basis of 'The Guideline of Sasangin's Diagnosis & Treatment(GSDT)'.

**Methods** ; First, I divid 「Part V」 into 4 cartegories (Normal Condition, Abnormal Condition, good or bad Condition, Better or Worse Condition). And then each symtom is analyzed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Conclusions** ; I am sure that it gives the first step toward Indentifying Sasangin of 【Donggyi Soose Bowon】. All of Sasangin Identifying Supplementary are analyzed by SCM. They are divided the identifying for Sasangin classification and Sasangin diagnosis of the disease. And this study will give the basis of 'GSDT'.

**Key Words** ; Sasangin Identify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Donggyi Soose Bowon Chobonguan

I. 緒 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이하 ‘草本卷’이라 한다)은 【東醫壽世保元 ; 1894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東武 李濟馬(1837-1900)에 의해 쓰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原人篇, 病變篇, 藥方篇의 總3篇<sup>1)</sup>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原人篇」은 五統,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94-5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 ☎02-3457-9091 e-mail ; sasangin@khu.ac.kr

1) 원래는 ‘篇’이라고 하지 않았으나 편의상 저자가 명명하였다.

「病變篇」은 六統, 「藥方篇」은 四統의 總15統으로 세분되어 있다.<sup>1</sup>

【草本卷】은 최근 서지학적 연구<sup>1</sup>이후 그 자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동무공의 학문과 철학사상<sup>2</sup>, 양생에 관한 고찰<sup>3</sup>, 사상방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sup>4</sup>, 素證에 관한 고찰<sup>5</sup>이 선행되어 연구되어 왔다.

초본권의 원인편 등을 중심으로 송<sup>2</sup>은 동무공의 학문과 철학사상을 재조명하였다. 병변편을 중심으로 養生, 素症 등이 연구되어 왔다.<sup>3,5</sup> 특히, 김<sup>5</sup>은 素症에 관한 고찰에서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과 【東武遺稿】의 자료를 사상인의 素症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그 원리와 근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래 素症이란 평소 가지고 있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 輕한 질병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의 자료는 素症외에 病的 有無, 進退, 吉凶을 위한 辨證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오히려 사상인의 素症보다는 四象人辨證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상인변증의 내용은 容貌詞氣, 體形氣像, 性質材幹, 恒心, 特異症狀 등으로 주로 【東醫壽世保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복약 이전에 증상을 중심으로 한 體質診斷辨證과 질병에서 증상을 중심으로 한 體質病證辨證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四象人辨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소홀히 되어 있었다.

이에 논자는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상의학적 이론의 토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을 중심으로 체질진단과 체질병증을 위한 四象人辨

證의 擴充을 위하여 내용상 관련조문을 연관하여 常證, 有病證, 吉凶證, 進退證으로 分類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논함으로써 향후 사상인 생리·병리적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사상인진단·치료지침(GSDT ; The Guideline of Sasangin’s Diagnosis & Treatment)’을 마련하는 기초를 삼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1.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을 중심으로 四象人辨證을 정리하였다.
2. 草本卷의 내용은 크게 사상인의 常證, 有病證, 吉凶證, 進退證으로 구분되며, 도표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논술하였다. 이들은 表裏陰陽升降緩束을 大綱으로 하여 臟腑大小·偏小之臟·保命之主·完實無病·溫熱冷寒·神氣血精·呼吸出納·上升之症과 下降之症·四黨 등의 사상의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3. 【東醫壽世保元】의 조문번호는 【四象醫學 ;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sup>6</sup>에 의하고, 【草本卷】의 조문번호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sup>7</sup>에 準하였다.
4. 그의 참고서적으로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復原本)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sup>8</sup>, 【東醫壽世保元(七版) ; 윤완중】<sup>9</sup>, 【格致彙 ; 한두정】<sup>10</sup>, 【국역한의학대계(⑮ 東武遺稿) ; 해동의학사】<sup>11</sup>, 【東醫寶鑑 ; 남산당】<sup>12</sup>, 【黃帝內經靈樞】<sup>13</sup> 등이 있다.
5. 조문내용중 관련된 타 서적의 내용 및 이론적 부연 설명은 각주를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과 혼잡되지 않도록 하였다.

### III. 本論 및 考察

#### 1. 四象人病變과 四象人辨證

草本卷 病變篇의 第五統에는 사상인변증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먼저 病變이란 용어와 辨證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서술하여 본다.

‘病變’은 사상체질의학에서는 【草本卷】에서 처음 篇名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후가들이 연구한 바가 없다.

【草本卷 ; 病變篇 第三統】에서 病變의 의미에 대하여 ‘소아의 變蒸이라 하는 것은 病變을 말한다. 소아 중 完實者는 이것이 없고, 虛弱者는 있다. 病變에는 얇은 질병에서 깊은 질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重病에서 輕病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生死의 辨別이다. 大人도 역시 그러하니 비록 불행히 痼病을 얻은 사람이 반드시 十分 조리하더라도 10여년이 지나서 病變후에야 完人이 된다.’<sup>1)</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病變이란 ‘疾病이 暴七情傷酒色 혹은 調理를 거쳐 輕重·深淺으로 變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무공은 【草本卷】에서 사상인의 수명, 양생, 사상인의 변증, 사상인의 병리, 사상인의 약리 등을 묶어 病變篇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위에 정의한 개념외에 질병원인(酒色

材權)→질병변화과정→양생→수명의 과정이 모두 포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病變이란 ‘人事에서 생긴 酒色材權의 질병원인, 질병의 변화과정을 포함하여 조리 및 양생, 그것의 결과 생긴 수명의 長短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리하여 四象人病變論에는 동무공의 壽命觀, 養生觀, 辨證觀, 藥理觀 등이 포함된다.

‘辨證’은 초본권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논자는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을 중심으로 四象人의 辨證을 확충하고자 한다.

보통 四象人辨證은 체질진단을 위한 변증과 체질병증을 변증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素證이 있다. 그리하여 논자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 ㄱ. 體質診斷을 위한 辨證 ; 사상인의 생리·병리 등을 포괄한 辨證
- ㄴ. 體質病證을 위한 辨證 ; 병의 有無·輕重·順逆·豫後 등을 포괄한 辨證
- ㄷ. 四象人素症 ; 사상인의 평소 증상 및 병증으로 위의 ㄱ·ㄴ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草本卷 ; 病變篇 第五統】의 내용을 분류하면 크게 常證(평소에 있는 증상이나 상태), 有病證(병의 有無를 판단하는 증상), 吉凶證(병의吉凶을 판단하는 증상), 進退證(병의 진퇴를 판단하는 증상)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Table 1】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B.3.2 四十命脉在內傷中分者 以平人尋常之心而略存警畏則其壽皆過六十 善調養則八九十壽可期 若四十命脉在牢獄度數則 不以賢者止足<sup>1</sup>不危之心謹復調養則五十前後必死. 東醫寶鑑小兒篇曰: ‘小兒有變蒸之病 勿藥有喜’ 此變蒸云者即病變也, 小兒完實者無之 虛弱者有之, 病變有自淺而深者 有自重而輕者 此死生之辨也. 大人亦然 不幸得痼病者 雖十分必調理 經歷十餘年病變然後方爲完人 【草本卷;病變篇 第三統】<sup>7</sup>

【Table 1】 四象人辨證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조문번호	
常證	身	盛	肩背暢	胸膈通	兩脇張	腰脇雄	B.6.1
		衰弱	筋脉酸	骨髓枯	皮毛焦	肉理寒	
	心	快	能哭泣	能歌唱	能話談	能善笑	B.6.2
		淫	恍惚	健忘	怔忡	悅亂	
	外感	鼻涕太少	肢節重痛	肢節微痛	鼻涕太多	B.6.26	
	形証	平居鼻涕絕少而大便罕泄	運氣頭頂必強鼻爨必淵			B.6.27	
	執証若有可疑則當占于	平居飲食如常而有時有就嘔逆	夜睡之盜汗	六脉之緊長	平居呼吸如常而有時有太息	B.6.34	
	太陰之夢泄太陽之腹痛	夢泄(不尋常)		夢泄(自尋常)		B.6.23	
		腹痛(病限必神速)		腹痛(病限必遲滯)			
	少陽之久泄少陰之暴泄		久泄泄瀉難月餘(其病輕)		暴泄泄瀉過三日(其病必重)	B.6.24	
瘧疾의 경우			惡寒時飲冷水發熱時不飲冷水	發熱時飲冷水惡寒時不飲冷水	B.6.25		
有病證	面色	淡白(無病) 黑(有病)	潤蒼(無病) 白黑(有病)	潤紫(無病)	淡紫(無病) 濁黃(有病)	B.6.4	
	膚肉	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濁肥(無病) 清瘦(有病)		태양인과 상동	B.6.5	
	身體汗	多汗(無病) 乏汗(有病)	乏汗(無病) 多汗(有病)	태양인과 상동	소양인과 상동	B.6.7	
	完實無病	小便旺多	大便善通	汗液通暢	飲食善化	B.6.3	
		小便澁短(病) 二時間屢次(非惡症)	大便澁滯(病) 一日間屢次(非惡症)	平時屢咳(病) 重病時屢咳(病解)	平時屢噁(病) 霍亂時屢噁(病解)	B.6.16	
	終非危症	大便不通	冷滯	小便秘澁	燥渴	B.6.29	
	終非輕症	食脹	面腫	昏倦	眩暈	B.6.30	
	急病欲占其吉凶	外腎之汗不汗	肘外之汗不汗	觀上之汗不汗	人中之汗不汗	B.6.9	
	腸氣虛弱	外腎必冷	膝脛必惡寒	肩肉必瘦	百會穴必惡風	B.6.33	
	吉祥	肉瘦溺數	能食安寢	肉肥汗多	眼明手捷	B.6.31	
凶症	肉浮多食	肉脫鮮食	語靜微弱	精神陷短	B.6.32		
吉凶證	安症·吉症斗燥症·陷症		重病中 膚肉肥而形氣萎德(非危症即安症)		重病中 面色紫而形氣煩鬱(非凶症即吉症)	B.6.18	
			膚肉瘦而精神醒爽(非差症即燥症)		面色青而精神昏沈(非欬症即陷症)	B.6.19	
	出氣	噓響累發(肝氣立)	放氣出緩(腎氣不促)	噫氣出張(肺氣不抑)	咳靜時快(脾氣旺)	B.6.17	
	寢眠呼吸	緩端寬臥靜重則吉		洪壯轉輾有力則吉		B.6.6	
	大小便	滑利則吉				滑利則不吉	B.6.8
	喜飲冷水	臟氣生發之征	病氣橫侵之兆	臟氣生發之征		B.6.28	
	雖重終效	病中胸痛利泄	病中沈潛安靜稍稍進食	病中身濕有汗	病中雄壯叫呼喜欲冷水	B.6.10 B.6.11 B.6.12	
	進退證	小便斗 面色	小便赤黃		面色膩澤		B.6.13
			(其病退)	(其病進)	(其病進)	(其病退)	
		上升之症斗下降之症	①嘔逆吐食(其病進) ②下利後重(其病退)		①下利後重(其病進) ②嘔逆吐食(其病退)		B.6.14
②病退尤速			①病進尤甚	②尤速	①尤甚	B.6.20	
			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		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		
		病間間咳嗽而善食身冷		病間間泄瀉而咳靜雄壯	B.6.21		
		滯痢病, 浮腫有漸		頭痛病, 氣色屢變	B.6.22		
其他	天行時氣病症有進無退則其病必死	十日內	二十日內		十日內	B.6.15	
	不可不用藥		二晝夜 大便不通則甘遂不可不用	五六日 片汗不出則熊膽不可不用	七日內 人中不汗則桂麥不可不用	B.6.35	
		丹毒紅粒遍體煩燥而不寧則石膏不可不用	語靜微低而胸臆阻塞則瓜蒂不可不用	乾霍亂面色帶青而上下不通則巴豆不可不用			

## 2. 常證

常證이란 尋常證(B.6.23)을 의미한다. 草本卷 病變篇의 第五統에서는 心身の 경우, 外感의 경우, 形證의 경우, 執証의 경우, 太陰之夢泄과 太陽之腹痛의 경우, 少陽之久泄과 少陰之暴瀉의 경우, 瘧疾의 경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1) 心身の 경우

정신적(心)·육체적(身)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태양인은 육체(身)에서 肺部는 盛하여 肩背가 暢하나, 肝部는 衰하여 筋脈이 酸한다.<sup>2)</sup> (B.6.1) 또한 정신(心)에서 肺意는 快하여 능히 哭泣하나, 肝魂은 淫하여 恍惚하게 된다.<sup>3)</sup> (B.6.2) 즉, 육체적으로 건강할때는 肩背가 반듯하며 굽지 않지만, 衰할때는 筋脈이 散하여 무력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할때는 쉽게 감동하여 눈물이 나오나, 衰할때는 잠이 없으면서 恍惚하게 된다.

소양인은 육체(身)에서 脾部는 盛하여 胸膈이 通하나, 腎部는 衰하여 骨髓가 枯한다.<sup>4)</sup>(B.6.1)

2) 肝血이 衰하게 되면 筋脈이 萎弱하여 태양인의 解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3) ○ 18-13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急迫之心寧靜則 肝血即和也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sup>6,9</sup>  
태양인의 恒心인 急迫之心이 안정되어 肝血이 和하면 肝魂이 안정되어 話談하나 안정치 못하면 恍惚하게 된다. 恍惚은 정신적인 긴장이 甚하여 나타나는 태양인의 특징 증상으로 이해하여야 마땅하다. 이와같이 恒心에 의한 神氣血精(四臟之氣)의 안정여부가 意魄魂志(物四端；四臟)의 哀怒喜樂을 제어) 【格致藁；儒略事物】<sup>10</sup>에 영향을 주어 소양인은 健忘(주6참고), 태음인은 怔忡(주8참고)으로 重·險證을 나타냈으나 태양인과 소음인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草本卷」 조문B.6.2에 의해 태양인은 恍惚, 소음인은 恍惚亂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었다.

4) 腎精이 衰하게 되면 骨髓가 枯하게 된다.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 靈樞曰 兩神相薄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精者身之本也. 又曰 五穀之津液和合而爲膏 內滲入于骨空 補益髓腦 而下流于陰股 陰陽不和則 使液溢而下流于

또한 정신(心)에서 脾魄은 壯하여 능히 歌唱하나, 腎志는 促하여 健忘하게 된다.<sup>5)</sup>(B.6.2) 즉, 육체적으로 건강할때는 胸膈을 열지만, 衰할때는 骨髓가 枯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할때는 입에서 窞노래가 자주 나오나, 衰할때는 健忘이 있다.

태음인은 육체(身)에서 肝部는 盛하여 兩脇이 張하나, 肺部는 衰하여 皮毛가 焦한다.<sup>6)</sup> (B.6.1) 또한 정신(心)에서 肝魂은 寧하여 능히 話談하나, 肺意는 阻하여 怔忡하게 된다.<sup>7)</sup> (B.6.2) 즉, 육체적으로 건강할때는 살이 찌며 兩脇이 발달하게 되지만, 衰할때는 피부와 모발이 枯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할때는 남과 대화를 많이 하나, 衰할때는 怔忡이 있다. 소음인은 육체(身)에서 腎部는 盛하여 腰腸이 雄하나, 脾部는 衰하여 肉理가 寒한다.<sup>8)</sup>(B.6.1)

陰 下過度則虛 虛則腰背痛而脛痠. 又曰 髓者 骨之充腦 爲髓海 髓海不足則 腦轉耳鳴筋痠眩冒 【東醫寶鑑；內景篇 精門 精爲身本】<sup>12</sup>

위의 조문과 같이 骨髓가 枯하면 척추증상(腰背痛而脛痠), 두뇌증상(腦轉, 耳鳴, 眩冒)이 있다.

5) ○ 18-12 少陽人 恒有懼心 懼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懼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懼心至於恐心 大病作而健忘也. 健忘者 少陽人病之險證也.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sup>6,9</sup>

소양인의 恒心인 懼心이 안정되어 腎精이 和하면 腎志가 안정되어 善笑하나 안정치 못하면 恐心에 이르러 健忘하게 된다. 따라서 健忘은 정신적인 긴장이 甚하여 나타나는 소양인의 특징 증상으로 이해하여야 마땅하다.

6) ○ 13-17 諸澁枯澀揭 皆屬於燥

【東醫壽世保元；肝受熱裏熱病】<sup>6,9</sup>

肺神이 衰하게 되면 皮毛가 焦하여 澁·枯·澗·皺·揭한 燥가 나타난다.

7) ○ 18-11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則 放心桎梏而 物化之也. 若怯心至於怕心則 大病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sup>6,9</sup>

태음인의 恒心인 怯心이 안정되어 肺神이 和하면 肺意가 안정되어 哭泣하나 안정치 못하면 怕心에 이르러 怔忡하게 된다. 따라서 怔忡은 정신적인 긴장이 甚하여 나타나는 태음인의 특징 증상으로 이해하여야 마땅하다.

8) 脾氣가 衰하게 되면 肉理가 寒하여 手足이 逆으로 무처럼 처지며 가늘고 찬증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무공의 초기 사고로 이후 【東醫壽世保元；

또한 정신(心)에서 腎志는 裕하여 능히 善笑하나, 脾魄은 蕩하여 恹亂하게 된다.9)(B.6.2) 즉, 육체적으로 건강할때는 방광이 발달하여 腰腸이 웅장하지만, 衰할때는 손발이 차게 된다. 정신적으로 건강할때는 잘 웃고 여유가 있으나, 衰할때는 手足恹亂이 있다.

B.6.1 肺部盛則肩背暢, 脾部盛則胸膈通, 肝部盛則兩脇張, 腎部盛則腰腸雄.

肺部衰則皮毛焦, 脾部衰則肉理寒, 肝部衰則筋脉酸, 腎部衰則骨髓枯.

B.6.2 肺意快則能哭泣, 脾魄壯則能歌唱, 肝魂寧則能話談, 腎志裕則能善笑.

肺意阻則怔忡作也, 脾魄蕩則恹亂作也, 肝魂淫則恍惚作也, 腎志促則健忘作也.

## (2) 外感의 경우

외감에서는 鼻涕와 肢節痛이 중요한 변별증상이 된다.

태양인은 鼻涕가 거의 드물다. 이것은 소음인과 구분되는 증상이다.(B.6.26) 鼻涕는 鼻流清涕(飢)와 鼻流濁涕(鼻淵)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傷風 또는 肺寒이 원인인 鼻流清涕가 해당된다.10) 태양인에게 大惡寒, 發熱, 身體疼痛 같은

傷寒證은 있으나 鼻涕같은 傷風證은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大惡寒, 發熱, 身體疼痛 같은 傷寒證이 있어도 腰脊表氣가 충실하다. 이것은 解體같은 太重證은 아니므로 쉽게 치료된다.11) 반면에 소음인은 鼻涕가 많다. 이것은 체질적으로 腹冷으로 취약한 코에 傷風으로 인하여 발병한다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清涕한 飢가 오래되면 鼻淵이 된다.

소양인은 肢節痛이 심하다. 이것은 태음인과 구분되는 증상이다.(B.6.26) 肢節痛은 風熱로 인한 증상이다. 따라서 火熱의 병증을 가진 소양인에게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태음인은 肺의 溫氣가 舒暢하지 못하여 汗이 배출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惡寒 또는 惡熱이 심한 양상을 가진다.

B.6.26 少陰之外感鼻涕太多, 太陽之外感鼻涕太少, 少陽之外感肢節重痛, 太陰之外感肢節微痛.

## (3) 形證의 경우

태양인은 평소에 鼻涕가 거의 없고, 대변도 설사하는 경우가 드물다.(B.6.27) 만약에 腹痛, 腸鳴, 泄瀉, 痢疾 같은 증상이 있어도 小腸裏氣가 충실하다. 이것은 噎膈같은 太重證은 아니므로 쉽게 치료된다.12)

소양인은 감기가 들면 風熱로 인하여 頭頂部가 뻐뻐하고, 鼻流濁涕한 鼻淵이 있다.

B.6.27 太陽之人形證平居鼻涕絕少而大便罕泄, 少陽之人形證運氣頭頂必強, 鼻梁必淵.

臟腑論】<sup>69</sup>에서는 肺脾肝腎의 신체형들은 皮筋肉骨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肺는 皮毛를 살피며, 脾는 筋脈을 살피며, 肝은 肉을 살피며, 腎은 骨을 살피서 각 臟의 盛衰를 판단하였다.

9) ○ 18-13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不安定之心寧靜則脾氣即活也 【東醫壽世保元 ; 四象人辨證論】<sup>69</sup> 소음인의 恒心인 不安定之心이 안정되어 脾氣가 활하면 脾魄이 안정되어 歌唱하나, 안정치 못하면 恹亂하게 된다. 따라서 手足恹亂은 정신적인 긴장이甚하여 나타나는 소음인의 특징 증상으로 이해하여야 마땅하다.

10) ○ 內經曰 泣涕者腦也 腦者陰也 腦滲爲涕 ○ 難經曰 腎主液 入肺爲涕 涕者肺之液也 ○ 膽移熱於腦則 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 肺熱則 涕出黃濁如膿 惝大如彈丸 從鼻中出不出傷肺 傷肺則死也 ○ 傷風則 夾然鼻流清涕 ○ 鼻流濁涕者 屬風熱也 鼻流清涕者 屬肺冷也

【東醫寶鑑 ; 內景篇 ; 津液門 ; 涕】<sup>12</sup> 涕는 肺之液이다. 鼻流清涕(鼻飢)와 鼻流濁涕(鼻

淵)가 있으며, 원인이 寒(風寒, 肺寒)과 熱(風熱, 肺熱)에 의해 다른 것이다.

11) ○ 15-4 ..... 有解體證者 必無大惡寒發熱身體疼痛之證也 太陽人 若有大惡寒發熱身體疼痛之證則 腰脊表氣充實也 其病易治 其人亦完健. 【東醫壽世保元 ; 太陽人外感腰脊病論 ; 解體】<sup>69</sup>

12) ○ 16-5 ..... 太陽人 若有腹痛腸鳴泄瀉痢疾之證則 小腸裡氣充實也 其病易治 其人亦完健 【東醫壽世保元 ; 太陽人內觸小腸病論 ; 噎膈】<sup>69</sup>

#### (4) 執證의 경우

執證은 병의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을 말한다.

태양인은 평상시와 같이 먹는데 간혹 嘔逆하는 증상이 있으면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B.6.34) 이것은 태양인의 呼散之氣가太過하고 吸聚之氣가 不足할 때에 나타나는 초기 현상이기 때문이다.

소양인은 盜汗이다.(B.6.34) 이것은 소양인의 陽暖之氣가太過하여 脾氣盛(火)함으로써 腎精毀하여 나타나는 초기 현상이기 때문이다.

태음인은 六脉之緊長이다.(B.6.34) 이것은 태음인의 吸聚之氣가太過하여 肝血盛함으로써 나타나는 초기 현상이기 때문이다.

소음인은 呼吸이 평상시와 다르게 간혹 太息(한숨)하는 것이다.(B.6.34) 이것은 소음인의 陰清之氣가太過하여 腎精盛하고 脾氣虛함으로써 呼吸으로써 陽氣를 보완하려는 초기 현상이기 때문이다.

B.6.34 太陰之執證若有可疑則當占于六脉之緊長，少陽人之執證若有可疑則當占於夜睡之盜汗也，少陰之執證平居呼吸如常而有時有太息，太陽之執證平居飲食如常而有時有就嘔逆。

#### (5) 太陰之夢泄과 太陽之腹痛의 경우

태양인은 夢泄이 거의 없다. 반면에 태음인은 혼한데 이것은 肝熱에서 오는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이다.(B.6.23) 보통 夢泄은 '夢泄屬心'하여 清心을 치료대장으로 삼았다.<sup>13)</sup> 그리

13) ○ 直指曰 邪客於陰 神不守舍 故心有所感 夢而後泄也。其候有三 年少氣盛 綽曠矜持 強制情慾 不自覺知 此泄如瓶之滿而溢者 人或有之勿藥可也。心家氣虛 不能主宰 或心受熱邪 陽氣不收 此泄如瓶之側而出者 人多有之 其病猶輕 合用和平之劑。藏府積弱 眞元久虧 心不攝念 腎不攝精 此泄如瓶之罅而出者 人少有之 其病最重 須當大作補湯。○ 夢遺不可作虛冷 亦有經

나 東武公은 '夢泄屬肝熱'로 주로 태음인에게 많고 清肝燥熱하여 澁精，縮尿하였다.

그리고 태양인의 腹痛은 小腸病의 表病에 해당되어 輕證이므로 病限이 신속하게 된다. 그러나 태음인의 腹痛은 胃脘病의 裏病에 해당되어 重證이므로 病限이 지체된다.(B.6.23) 즉 태양인, 태음인에서는 夢설과 복통은 吸聚之症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B.6.23 太陰人有夢泄其證自尋常，太陽人有夢泄其症不尋常。

太陽人有腹痛病限必神速，太陰人有腹痛病限必遲滯。

#### (6) 少陽之久泄과 少陰之暴瀉의 경우

소음인은 暴泄이 三日을 지나면 少陰證泄瀉로 전변되어 그 병이 重하게 된다. 그러나 소양인은 오랫동안 설사하여도 過不大便三日하지 않으면 그 병은 輕하다.(B.6.24)

설사는 下降之症이므로 陽暖之氣가 부족한 소음인에게는 특히 불리하다.

B.6.24 少陰人有暴泄泄瀉過三日則，其病必重，少陽人有久泄泄瀉雖月餘，其病輕也。

#### (7) 瘧疾의 경우

아래 조문은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

絡熱而得之 嘗治一人至夜 脊心熱夢遺 用珍珠粉丸 猪苓丸 遺止而終 服紫雪 脊熱始除 清心丸亦佳 ○ 夢遺全屬心 蓋交感之精 雖常有一點白膜 裹藏於腎 而元精以爲此 精之本者 實在乎心 日有所思 夜夢而失之矣 宜黃連清心飲 ○ 夢與鬼交而泄精 名曰夢遺 專主於熱 用黃栢知母牡蠣蛤粉 若內傷氣血不能固守而夢遺者 當補以八物湯加減 吞棗根皮丸 ○ 本事曰 年少壯者 節慾而遺泄 宜清心丸 珍珠粉丸 ○ 戴氏曰 夢遺精滑 皆相火所動 久則有虛而無寒也 ○ 正傳曰 一人 夢遺形瘦 服定志珍珠粉丸而效 ○ 固眞丹 鹿角散 保精湯 歸元散 皆治夢交泄精【東醫寶鑑；身形篇；精門；夢泄屬心】<sup>12)</sup>

夢泄은 크게 어떠한 원인이든간에 心不攝念 혹은 腎不攝精의 과정을 거쳐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清心과 固精을 치료대장으로 삼아 왔다.

論』의 조문18-9를 참고해야 한다. 즉 태음인과 소음인을 病證을 통하여 변증하는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다.<sup>14)</sup>

학질은 태음인의 경우에는 表之表病 즉 표음, 표양의 병리에서 한열이 왕래하고, 소음인의 경우에는 表之表病 즉 울광중증의 리음, 리양의 병리에서 한열이 왕래한다.

따라서 태음인 표양부족하면 惡寒하지만 裏陽은 건재하므로 냉수를 마실수 있다. 그러나 發熱시는 표음부족이므로 냉수를 찾지 않는다. 소음인은 리음부족하고 리양이 건재하므로 냉수를 마실수 있다. 그러나 리양이 부족하면 오히려 냉수를 마시지 못한다.

B.6.25. 如太陰人瘧疾惡寒時飲冷水, 發熱時不飲冷水, 少陰人瘧疾發熱時飲冷水, 惡寒時不飲冷水.

## 2. 有病證

有病證은 병의 有無를 분별하는 증상이다. 조문에서는 有病, 無病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草本卷 病變篇의 第五統에서는 面色의 경우, 膚肉의 경우, 汗의 경우, 完實無病의 경우, 終非危症과 終非輕症의 경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1) 面色의 경우

面色은 각 체질의 偏小之臟의 상태를 나타낸다. 태양인은 肝血이 완실하면 면색이 淡白하고 부족하면 黑하다.

소양인은 腎精이 완실하면 면색이 潤蒼하고 부족하면 白黑하다.

태음인은 肺神이 완실하면 면색이 潤紫하다.

소음인은 脾氣가 완실하면 면색이 淡紫하고 부족하면 濁黃하다.(B.6.4)

음인은 淡紫, 潤紫하면 병이 없고, 양인은 淡白, 潤蒼하면 병이 없다.

B.6.4 少陰人面色淡紫則無病, 濁黃則有病, 太陰人面色潤紫則無病, 少陽人面色潤蒼則無病, 白黑則有病, 太陽人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

### (2) 膚肉의 경우

肥瘦는 氣血의 有餘와 不足을 반영한다. 즉 肥人은 氣虛→寒→濕→痰을 낳으며, 瘦人은 血虛→熱→火→燥를 낳는 고로 肥人은 血實氣虛하여 寒濕이 많고, 瘦人은 氣實血虛하여 燥熱이 많다.<sup>15)</sup>

태양인과 소음인은 마르면(氣實) 병이 없고, 살이 찌면(氣虛) 병이 있다. 그러나 태음인과 소양인은 살이 찌면(血實) 병이 없고, 마르면(血虛) 병이 있다.(B.6.5)

B.6.5 太陽人·少陰人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太陰人·少陽人膚肉濁肥則無病, 清瘦則有病.

### (3) 汗의 경우

15) 靈樞曰 肥而澤者 血氣有餘 肥而不澤者 氣有餘血不足 瘦而無澤者 血氣俱不足 審察其形氣有餘不足而調之 可以知逆順矣 ○ 人黑瘦者易治 肥大肉厚赤白者難愈 黑人耐風濕 赤白者不耐風濕 瘦人肉硬 肥人肉軟 肉軟則受病難愈 ○ 氣衰則身冷 血衰則膚硬 ○ 肥人 氣虛生寒 寒生濕 濕生痰, 瘦人 血虛生熱 熱生火 火生燥 故肥人多寒濕 瘦人多熱燥也【東醫寶鑑; 雜病篇; 辨症門; 肥瘦辨病候】<sup>12)</sup> 肥瘦에 따라 氣血의 盛衰를 살핀 것이다. 즉 形을 관찰하여 氣血의 有餘와 不足을 조절하는 기준을 삼은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의 큰 특징으로 현재 변증과 치료에 크게 이용되고 있다.

14) ○ 18-9 太陰少陰人 體形或略相彷彿 難辨疑似而觀其病證則 必無不辨. 太陰人虛汗則完實也 少陰人虛汗則大病也. .... 太陰人 瘧疾惡寒中能飲冷水 少陰人 瘧疾惡寒中不飲冷水【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sup>6.9)</sup>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인변증론에서 태음인과 소음인 변증내용중 하나이다. 즉 瘧疾중 惡寒時 飲冷水의 能不及 다름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은 조본권의 B.6.25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汗은 陽을 돕는 것이다.<sup>16)</sup> 그런데 체질에 따라 汗出에 따라 병의 유무를 달리 하는 것은 그들이 위주로 하는 병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태양인과 태음인은 氣液病證을 위주함으로써 평소 몸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B.6.7) 즉 表裏陰陽의 內外緩束에 의한 것으로 태음인의 表陽外緩, 태양인의 裏陰內束에 의한 생리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소양인과 소음인은 水穀病證을 위주함으로써 평소 몸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병이 있는 것이다.(B.6.7) 즉 소음인은 陽氣가 下陷된 亡陽의 상태에서 나타나고, 소양인은 陰虛午熱의 상태에서 나타난다.

B.6.7. 太陽太陰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 (4) 完實無病的 경우

完實無病은 각 체질별로 偏小之臟의 건강조건이다. 즉 태양인은 肝小하므로 小便旺多하면 건강한 상태이고, 소양인은 腎小하므로 大便善通하면 건강한 상태이고, 태음인은 肺小하므로 汗液通暢하면 건강한 상태이고, 소음인은 脾小하므로 飲食善化하면 건강한 상태이다.(B.6.3) 이것은 津液代謝의 軸인 肺와 肝은 땀과 소변으로 생리적·병리적현상이 나타나고, 水穀代謝의 軸인 脾와 腎은 소화와 대변으로 생리적·병리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소음인이 평상시에 屢噫하는 것은 胃

虛에 寒이 狹한 병이지만, 枳實에 屢噫하는 것은 胃氣가 상승하는 증상이므로 병이 풀리는 증상에 해당된다. 태음인이 평상시에 屢咳하는 것은 肺燥한 병이지만, 中病시에 屢咳하는 것은 肺氣가 호산하는 증상이므로 병이 풀리는 증상에 해당된다. 소양인의 대변<sup>17)</sup>이 澁滑한 것은 胃熱病이다. 一日間屢次(一晝夜間三四五次 小小滑利)는 將澁之候이므로 非惡症이며 예방하면 된다. 만약 대변이 一晝夜不通하면 胃熱已結한 것이며, 二晝夜不通하면 熱重한 것이며, 三晝夜不通하면 危險한 것이다. 따라서 大便不通이 一晝夜八九辰刻이나 二晝夜면 恰好用地黃白虎湯하고 三晝夜之危險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sup>18)</sup> 태양인은 小便澁短은 小腸病이다. 二時間屢次한 경우는 八九日大便不通證로 非惡症이며 미후등오가피탕을 투여한다.<sup>19)</sup>(B.6.16)

B.6.3 少陰人飲食善化則完實而無病, 少陽人大便善通則完實而無病, 太陰人汗液通暢則完實而無病, 太陽人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

B.6.16 少陰人平時屢噫者病也, 霍亂時屢噫者病解也. 太陰人平時屢咳者病也, 重病時屢咳者病解也. 少陽人大便澁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非惡症也. 太陽人小便澁短者病也, 二時間屢次則非惡症也.

#### (5) 終非危症과 終非輕症의 경우

17) ○ 10-11 少陽人 表裏病結解 必觀於大便 而少陽人大便 頭燥尾滑 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其次 大便滑 一二次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病快解之大便也. 其次 一二次尋常滑便者 有病者 病勢不加之大便也. 其次 或過一晝夜有餘不通 或二晝夜間 三四五次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 【東醫壽世保元 ; 少陽人 胃受熱裏熱病】<sup>6.9</sup>

18) ○ 10-8 ..... 凡少陽人大便一晝夜不通則 胃熱已結也. 二晝夜不通則 熱重也. 三晝夜不通則 危險也. 一晝夜八九辰刻 二晝夜 恰好用之 無至三晝夜之危險. 【東醫壽世保元 ; 少陽人 胃受熱裏熱病】<sup>6.9</sup>

19) ○ 18-15 太陽人 有八九日大便不通證 其病非殆證也. 不必疑惑而亦不可無藥 當用獼猴藤五加皮湯. 【東醫壽世保元 ; 四象人辨證論】<sup>6.9</sup>

16) ○ 大汗傷氣 ○ 汗者 本所以助陽也. 若陽受陰邪 寒結無形 須當發去陰邪 以復陽氣 陰邪既去而復汗之 則反傷陽也. 經曰重陽必陰 故陽氣自亡 汗多亡陽 此之謂也. 【東醫寶鑑; 雜病編; 汗門; 汗多亡陽】<sup>12</sup>

땀내는 것은 陽을 돕는 것이고, 설사시키는 것은 陰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심하게 땀을 내면 氣가 손상되고, 너무 심하게 설사하면 血이 손상되는 것이다.

偏大한 臟局에 병이든 것은 궁극에는 위험한 증상이 아니다. 즉 소양인의 胃寒證인 冷滯는 궁극에는 위험한 증상이 아니며, 반대로 소음인의 燥渴은 궁극에는 위험한 증상이 아니다. 태양인의 肺局(呼散之力)에 의한 大便不通은 궁극에는 위험한 증상이 아니며, 반대로 태음인의 肝血虛證인 小便秘澁은 궁극에는 위험한 증상이 아니다.(B.6.29)

그러나 偏小한 臟局에 병이든 것은 가벼운 증상이 아니다. 즉 소양인의 腎精손상으로 인한 面腫, 脾氣손상으로 인한 眩暈, 肝血손상으로 인한 食脹, 肺神손상으로 인한 昏倦는 증중에 해당되니 가볍게 보아서 안된다.(B.6.29)

B.6.29. 少陽之冷滯, 少陰之燥渴, 太陽之大便不通, 太陰之小便秘澁, 雖非渴症, 終非危證.

B.6.30. 少陽之面腫, 少陰之眩暈, 太陽之食脹, 太陰之昏倦, 眞是重症, 終非輕證.

### 3.吉凶證

吉凶證은 병의吉凶을 분별하는 증상이다. 조문에서는 吉(吉祥 등), 凶(凶證 등)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草本卷 病變篇의 第五統에서는 腸氣虛弱과 急病欲占其吉凶, 吉祥證과 凶證, 安證(吉證)과 燥症(陷證), 出氣의 경우, 雖重終效, 寢眠呼吸의 경우, 喜飲冷水의 경우, 大小便滑利의 경우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1) 腸氣虛弱과 急病欲占其吉凶

腸氣虛弱은 身形<sup>20)</sup>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태

20) ○ B.6.33 ; 肩肉(背=肺), 百會穴(胸=脾), 外腎(腹=肝), 膝脛(脊=腎) ○ B.6.9 ; 觀上(背=肺), 人中(胸=脾), 外腎(腹=肝), 肘外(脊=腎) ○ 22. .... 少陰人病則, 張仲景以太陽陽明論表裏故, 余亦不得不以背部上下論表裏也. 少陽人病則, 張仲景以表解裏未和之胸背腹脊者論表裏故, 余亦不得不以胸背腹脊論表

음인의 폐기가 허약하면 肩肉(肺)가 必瘦하고, 소음인의 脾氣가 허약하면 百會穴(脾)이 必惡風하고, 태양인의 肝氣가 허약하면 外腎(肝)이 必冷하고, 소양인의 腎氣가 허약하면 膝脛(腎)이 必惡寒한다.(B.6.33)

급병에서 汗은 각주22에 準하여 汗出로 예측하였다. 즉 태음인은 觀上之汗, 소음인은 人中之汗, 태양인은 外腎之汗, 소양인은 肘外之汗이다.(B.6.9) 이것은 각각의 偏小之臟의 外候之處<sup>21)</sup>에 해당된다.

B.6.33. 少陰人腸氣虛弱則百會穴必惡風, 少陽人腸氣虛弱則膝脛必惡寒, 太陰人腸氣虛弱則肩肉必瘦, 太陽人腸氣虛弱則外腎必冷.

B.6.9. 少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人中之汗不汗也. 少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肘外之汗不汗也. 太陰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觀上之汗不汗也. 太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則, 當視於外腎之汗不汗也.

#### (2) 吉祥證과 凶證

소음인의 吉祥證은 眼明과 手捷이며(B.6.31), 凶證은 精神陷短이다.(B.6.32) 소음인이 갑자기 '(陽)氣脫'에 이르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고<sup>22)</sup>, 수족이늘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裏也. 蓋胸背腹脊者, 表裏之表裏也. 背部上下者, 表之表裏也. 【東醫壽世保元(舊本) ; 少陽人外感膀胱病論】<sup>8)</sup>

身形의 四象은 背(肺=木), 胸(脾=火), 腹(肝=金), 脊(腎=水)이다.

21) 肺局之溫氣의 外候之處는 觀上이며, 脾局之熱氣의 外候之處는 人中이며, 肝局之涼氣의 外候之處는 外腎이며, 腎局之寒氣의 外候之處는 肘外로 생각된다.

22) ○ 黃帝曰: 六氣者, 有餘不足, 氣之多少, 腦髓之虛實, 血脈之清濁, 何以知之.

岐伯曰: 精脫者, 耳聾. 氣脫者, 目不明. 津脫者, 腠理開, 汗大泄.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痠, 耳數鳴. 血脫者, 色白, 夭然不澤, 其脈空虛,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흥증에 해당된다. 眼明, 手捷, 精神明朗은 脾局의 陽氣가 회복되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소양인의 吉祥證은 能食과 安寢이며(B.6.31), 凶證은 肉脫鮮食이다.(B.6.32) 소양인이 '陰虛陽盛'에 이르면 잘 안먹고, 잠을 못자며,<sup>23)</sup>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흥증에 해당된다. 能食, 安寢은 腎局 의 陰氣가 회복되는 징후라 볼 수 있다.

태음인의 吉祥證은 肉肥汗多이며(B.6.31), 凶證은 語靜微弱이다.(B.6.32) 肺局이 舒暢하여 肉肥汗多하고, 肺神이 안정치 못하면 語靜微弱하다.

태양인의 吉祥證은 肉瘦溺數이며(B.6.31), 凶證은 肉浮多食이다.(B.6.32) 肝局이 吸聚하여 肉瘦溺數하고, 간혈부족으로 肉浮多食하여 食脹(B.6.30)한다.

B.6.31. 眼明手捷少陰之吉祥, 能食安寢少陽之吉祥.

肉肥汗多太陰之吉祥, 肉瘦溺數太陽之吉祥.

B.6.32. 精神陷短少陰之凶證, 語靜微弱太陰之凶證, 肉脫鮮食少陽之凶證, 肉浮多食太陽之凶證.

### (3) 安證(吉證)과 燥症(陷證)

소양인이 重病中에 더욱 陽盛하여 膚肉瘦而 精神醒爽은 燥症에 해당되나, 陰氣가 始生하여 膚肉肥而形氣萎憊는 安證에 해당된다.(B.6.18) 또한, 소음인이 重病中에 더욱 陰盛하여 面色靑而精神昏沈은 陷證에 해당되나, 陽氣가 始生하여 面色紫而形氣煩懣은 吉證에 해당된다.(B.6.19)

B.6.18. 少陽人重病中, 膚肉肥而形氣萎憊者, 非危證也, 卽安證也.

膚肉瘦而精神醒爽者, 非差症也, 卽燥症也.

B.6.19. 少陰人重病中, 面色紫而形氣煩懣者, 非凶證也, 卽吉證也.

面色靑而精神昏沈者, 非歇症也, 卽陷證也.

### (4) 出氣의 경우

인체에서 생기는 氣의 출입으로 病中吉證을 논한 것이다.(B.6.17) 즉 胃腕氣는 噫氣, 胃氣는 咳, 小腸氣는 噦, 大腸氣는 放氣로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動靜으로 四腑之氣와 四臟之氣의 完實한 상태를 예측하여 病中吉凶을 알 수 있는 것이다.

B.6.17. 少陰人病中, 咳靜時快則, 脾氣旺也.

太陽人病中, 噦響累發則, 肝氣立也.

太陰人病中, 噫氣出張則, 肺氣不抑也.

少陽人病中, 放氣出緩則, 腎氣不促也.

### (5) 雖重終效

비록 병이 중하더라도 예후가 좋은 증상을 水穀之四氣(溫熱冷寒)로 논한 것이다.(B.6.10~ B.6.12) 重病이라도 소음인이 胃之熱氣(陽暖之氣)가 아직 남아 있으면 喜欲冷水하고, 소양인은 大腸之寒氣가 아직 남아 있으면 忽大飽食, 有口味(B.6.11)하지 않고 稍稍進食한다. 만약 胃熱이 심하여 大飽食하고 循衣摸床하면 動風하여 凶證에 해당된다. 또한 태음인이 胃腕之溫氣가 아직 남아 있으면 身溫而頂顛項背次第得汗(B.6.12)한다. 특히 胃腕의 溫氣가 운행하는 순서대로 頂(頭腦)→顛項(耳)→(舌下)→背(胃腕)에서 次第得汗한다.<sup>24)</sup> 태양인은 小腸之

此其候也【靈樞；第三十 決氣】<sup>13)</sup>

○ 凡人目暴不見物 皆是氣脫 用人參膏以補之 血藥以行之 <丹心> 【東醫寶鑑；外形篇；眼門；眼昏】<sup>12)</sup>

23) ○ 傷寒及雜病多睡者 陽虛陰盛也 無睡者 陰虛陽盛也. 喜明者 屬陽元氣實也 喜暗者 屬陰元氣虛也. 睡向壁者 屬陰元氣虛也 睡向外者 屬陽元氣實也. <回春> 【東醫寶鑑；內景篇；夢門；睡辨陰陽虛實】<sup>12)</sup>

24) ○ 4-4 水穀溫氣 自胃腕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髓海 髓海者 神之所舍也, 髓海之髓汁清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 故胃腕與舌·耳·頭腦·

冷氣가 아직 남아 있으면 胸痛利泄하게 된다.

B.6.10. 少陰人病中雄壯叫呼, 喜飲冷水者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少陽人病中沈潛安靜, 稍稍進食者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太陰人病中身濕有汗則, 其病雖重終當效也.

太陽人病中胸痛利泄者, 其病雖重終當效也.

B.6.11 少陽人重病中, 無口味, 忽大飽食, 有口味者, 此壞症也. 循衣摸床諸般凶症, 不遠皆偏 而必死, 但稍稍小食吉兆也.

B.6.12. 太陰人急病身冷而全體四肢俱大汗者危證也. 但身溫而頂顙項背次第得汗者吉兆也. 太陰之汗, 始於頂者可喜也. 中於顙者免危也. 終於背者病愈也.

(6) 寢眠呼吸의 경우

호흡의 정도는 氣液代謝를 위주한 태양인과 태음인에 해당되는 주된 증상이나 그것이 陰陽盛衰를 논하므로 소양인과 소음인도 유추하여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호흡은 깨어있을 때보다 수면중에 관찰하는 것이 더욱 선명하다. 따라서 陽盛하기 쉬운 체질인 태양인(소양인)의 수면호흡이 緩端하고 寬臥靜重하면 吉症이고, 陰盛하기 쉬운 체질인 태음인(소음인)의 수면호흡이 洪壯하고 轉輾有力하면 吉症이다.(B.6.6)

B.6.6. 太陽少陽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吉, 太陰少陰寢眠呼吸洪壯轉輾有力則吉.

皮毛 皆肺之黨也. 【東醫壽世保元 臟腑論】<sup>69</sup>

○ 12-7 ...大凡太陰人汗 始自耳後高骨面部髮際 大通於胸臆間而病解也 髮際之汗 始免死也, 額上之汗 僅免危也, 肩稜之汗 快免危也, 顙上之汗 生路寬闊也, 脣頤之汗 病已解也, 胸臆之汗 病大解也...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腕受寒表疾病】<sup>69</sup>

4-4와 12-7을 종합하면 髮際之汗(皮毛)→額上之汗·肩稜之汗(頭腦)→顙上之汗(耳)→脣頤之汗(舌)→胸臆之汗(胃腕)으로 胃腕의 溫氣運行과 태음인의 次第得汗과 相通하게 된다.

(7) 喜飲冷水의 경우

소양인이 병중에 喜飲冷水하는 것은 裏熱(胃火)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利小便 또는 泄瀉가 계속되어 腸胃에 수분이 모자라면 渴而飲冷水하고 大便不通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체질은 腸胃熱과는 무관한 병리를 갖고 喜飲冷水하므로 장차 生發한 臟氣를 갖게 되는 것이다.(B.6.28)

B.6.28. 太陽太陰少陰人喜飲冷水者, 臟氣生發之徵也, 少陽人喜飲冷水者, 病氣橫侵之兆也.

(8) 大小便滑利의 경우

대소변의 상태를 보고 병의 길흉을 논한 것이다.(B.6.8) 大小便滑利則吉은 陽인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태양인은 小便利, 소양인은 大便滑하면 吉한 증상이다. 大小便滑利則不吉은 陰인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태음인이 小便利하면 肝燥熱한 것이고<sup>25)</sup>, 소음인이 大便滑하면 太陰證에 해당되는 것으로 不吉한 증상이다. 이것은 큰 대강을 말한 것이고, 더욱 정밀하게 분류면 아래 【Table 2】와 같다.

B.6.8. 太陽少陽大小便滑利則吉, 太陰少陰大小便滑利則不吉.

【Table 2】 사상인 표리병의 不吉한 대소변

不吉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表病	大便難 (解休)	小便不利 (結胸)	大便滑 (胃腕寒)	小便利 (蓄血)
裏病	小便不利 (噎膈)	大便難 (胃熱)	小便利 (肝燥熱)	大便滑 (太陰·少陰)

25) ○ 13-22 張仲景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 【東醫壽世保元 ; 太陰人肝受熱裏熱病】<sup>69</sup>

보통의 경우 消渴은 소양인병중에 해당되나 위의 13-22와 같이 飲一溲一하는 消渴은 태음인 燥熱에 해당된다. 따라서 肝燥熱의 辨證之要는 역시 '小便自利'에 있다.

#### 4. 進退證

進退證은 병의 進退를 分辨하는 證象이다. 조문에서는 其病進, 其病退라고 설명되어 있다. 草本卷 病變篇의 第五統에서는 小便과 面色의 경우, 上升之症과 下降之症에서 살펴 볼 수 있다.

##### (1) 小便과 面色의 경우

소양인이 小便赤黃하면 結滯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태양인은 그 병(表病의 解休證)이 물리난다고 한다.<sup>26)</sup>

소음인은 面色이 膩滓하거나 濁黃(B.6.4)하면 병이 진행되거나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태음인은 面色이 膩滓하거나 潤紫(B.6.4)하면 병(裏病의 肝燥熱)이 나아지거나 없는 것의 징후로 판단한다.(B.6.13)

B.6.13. 少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進. 太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退也.  
少陰之病, 面色膩滓則, 其病進也. 太陰之病, 面色膩滓則, 其病退也.

##### (2) 上升之症과 下降之症

嘔逆吐食은 上升之症이며, 下利後重은 下降之症이다.<sup>27)</sup> 陽人은 上升之症이면 병이 진행되

나 下降之症은 병이 물러나는 것이다. 陰人은 下降之症이면 병이 진행되나 上升之症은 병이 물러나는 것이다.

소양인이 嘔逆吐食은 表之裏病의 중간단계로 嘔吐에 해당하는 병증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태음인의 경우에는 順症에 해당되어 胃腕의 直升之氣가 퍼지는 좋은 징후이다.<sup>28)</sup>

소음인이 下利後重은 태음병에 해당하는 병증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태양인의 경우에는 順症에 해당되어 아직 小腸之氣가 남아 있다는 좋은 징후로 판단한다.<sup>29)</sup>(B.6.14)

또한, 조문B.6.20. 조문B.6.21. 조문B.6.22.은 소음인과 소양인의 경우에서 병의 輕重을 설명하였지만 결국은 上升之症과 下降之症의 개념에서 설명하면 분명해진다.

즉, 소음인의 頭痛發熱의 太陽傷風病은 冷泄(太陰證)보다 가벼워도 汗出의 有無<sup>30)</sup>를 관찰 하면서 치료하여야 한다. 소양인의 腹痛滯病은 汗咳(陰虛午熱證)보다 가벼워도 대변의 상태를

증상을 上升之症(頭痛·咳嗽·吐血·虛汗·飲冷)과 下降之症(夢泄·痢疾·腹痛·泄瀉)으로 구분하였다. 소양인은 上升之症은 病重하고 下降之症은 病愈之兆라 하고, 태음인은 그 반대로 설명하였다. 즉 陽人은 上升之症이 불리하고 下降之症이 유리하며, 陰人은 下降之症이 불리하고 上升之症이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26) ○ 16-11 太陽人 ..... 小便 一則宜多也 二則宜數也, ...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小腸病論】<sup>69)</sup>

○ 18-16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sup>69)</sup>

이부분은 논자가 문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양인은 小便多數 즉 飲一澀二하면 건강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小便黃赤은 小便短小하여 농축된 소변을 의미할 것인데, 이것이 병이 물러나는 증거라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적용한다면 表病 解休證의 경우 大便滑하면서 小便黃赤하면 병이 물러가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7) ○ 少陽之怒心弘大... 腹痛泄瀉 下降之病也 病則病矣. 而有此 病愈之兆也 不須深慮. 頭痛咳嗽吐血虛汗飲冷 上升之症也. 病實重也 豫備藥治可也. 太陰之喜心廣大... 頭痛咳嗽虛汗吐血 上升之症也 病中有此 病愈之兆也 不須深慮. 夢泄痢疾泄瀉 下降之症也. 病實重也 豫備藥治可也. 【普濟演說】<sup>14)</sup>

28) 태음인은 肺氣(胃腕)不抑하면 咳(단, 重病時屢咳가 해당됨), 噫氣, 汗, 嘔逆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29) ○ 16-5. .... 太陽人 若有腹痛·腸鳴·泄瀉·痢疾之證則 小腸裡氣充實也 其病易治 其人亦完健.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sup>69)</sup>  
열격의 증상은 小腸裏氣가 부족한 상태이나 위 16-5와 같이 腹痛·腸鳴·泄瀉·痢疾의 병증은 小腸裏氣가 충실하므로 그 병이 쉽게 치료될 수 있다.

30) ○ 6-5 論曰 張仲景所論 太陽傷風 發熱惡寒者 即少陰人腎受熱表熱病也.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桂枝湯, 川芎桂枝湯, 香蘇散,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發熱惡寒而有汗者 此亡陽初證也 必不可輕易視之 先用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三日連服而汗不止病不愈則 當用桂枝附子湯, 人參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東醫壽世保元; 少陰人腎受熱表熱病】<sup>69)</sup>  
소음인의 표병은 汗出의 有無에 따라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처음부터 구분되어 다른 병리를 갖게 된다.

관찰하면서 치료하여야 한다.(B.6.20)

소음인에서 頭痛發熱(上升之症)은 腹痛滯病(下降之症)보다 가벼운 병이다. 소양인은 반대이다.

소음인이 간간히 설사를 하더라도 기침이 없고 기운이 있으면 가벼운 병이다. 소양인이 간간히 기침하더라도 잘먹고 몸이 차면 가벼운 병이다.(B.6.21) 이것은 B.6.17에서 소음인이 병중에 '咳靜時快則 脾氣旺'과 소양인이 병중에 '放氣出緩則 腎氣不促'에 상통하는 부분이다.

소음인이 간간히 설사(下降之症)있으나 咳靜(上升之症)雄壯(脾氣旺)하면 輕症이며, 소양인이 간간히 咳嗽(上升之症)있으나 善食(上升之症)身冷(腎氣旺)하면 輕症이다.(B.6.21)

소음인이 두통에 안색이 자주 변하는 경우에는 重症에 해당된다. 소양인이 滯한 설사병에 점차 浮腫이 생기는 것은 重症에 해당된다.(B.6.22) 이것은 氣色屢變則 脾氣衰하고, 浮腫有漸則 腎氣促한 것을 의미하므로 중증이다.

소음인의 두통병이 비록 上升之症으로 예후가 양호하나 氣色屢變하는 偏小之臟의 손상이 심하면 重證이다. 소양인의 滯痢病이 비록 下降之症으로 예후가 양호하나 浮腫有漸하는 偏小之臟의 손상이 심하면 重證이다.(B.6.22)

B.6.14. 太陽少陽之病, 唯嘔逆吐食者, 其病進也 而少陽人尤甚也.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人尤速.

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尤甚也.

嘔逆吐食者, 其病退也, 而太陰人尤速也.

B.6.20. 少陰人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

少陽人腹痛滯病, 病則病也, 比之汗咳則輕症也.

B.6.21. 少陰人病間間泄瀉而咳靜雄壯則, 其病

非重症也, 七分輕也.

少陽人病間間咳嗽而善食身冷則, 其病非重也, 七分輕也.

B.6.22. 少陰人頭痛病, 氣色屢變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

少陽人滯痢病, 浮腫有漸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

## 5. 其 他

### (1) 天行時氣의 경우

보명지주가 肝氣·脾氣(緯)인 태양인과 소음인은 天行時氣 病症有進無退하면 十日內에 死하나, 肺氣·腎氣(經)인 태음인과 소양인은 天行時氣 病症有進無退하면 二十日內에 死한다.<sup>31)</sup>(B.6.15)

B.6.15. 太陽少陰天行時氣十日內, 病症有進無退則, 其病必死.

太陰少陽天行時氣二十日內, 病症有進無退則, 其病必死.

### (2) 不可不用藥

태음인이 運氣病五六日에 땀이 나지 않을 때는 반드시 熊膽을 사용하여야 하며, 語靜微低而腦膜阻塞하면 반드시 瓜蒂로 吐痰하여야 한다.

소양인이 運氣病二晝夜 大便不通하면 반드시 甘遂를 사용하여 通利大小便하여야 하며, 丹毒

31) ○ A.5.7 ..... 肺腎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之貴者宜乎, 經其終始之貫串也. 脾肝之運轉, 一收一放, 操唱和之機者宜乎, 緯其緊歇之範圍也.

【東醫壽世保元草本卷; 原人篇 第五統】<sup>7</sup>

四臟의 주요기능은 水穀의 上下운동을 관장하는 脾腎과 氣液의 內外운동을 관장하는 肺肝이 대표적이다. 또한 위 A.5.7과 같이 이들은 상호 보완 및 견제를 하는데 腎이 肺를 통하여 呼吸代謝에 개재하고, 肝이 脾를 통하여 水穀代謝에 개재함을 논한 것으로 생각된다.

紅粒遍體煩燥而不寧하면 반드시 石膏를 사용하여 清裏熱하여야 한다.

소음인이 運氣病七日內 人中不汗하면 반드시 桂蔘를 사용하여 升陽益氣하여야 하며, 乾霍亂面色帶靑而上下不通이면 반드시 巴豆를 사용하여야 한다.(B.6.35)

B.6.35. 太陰人運氣病五六日, 片汗不出則, 熊膽不可不用,  
少陽人運氣病二晝夜, 大便不通則, 甘遂不可不用,  
少陰人運氣病七日內, 人中不汗則, 桂蔘不可不用, 又少陰人乾霍亂面色帶靑而上下不通則, 巴豆不可不用,  
太陰人語靜微低而胸臆阻塞則, 瓜蒂不可不用, 少陽人丹毒紅粒遍體煩燥而不寧則, 石膏不可不用.

#### IV. 結 論

본 연구는 【草本卷】중 「病變篇 第五統」을 내용상 관련조문을 연관하여 常證, 有病證, 吉凶證, 進退證으로 分類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사상인변증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病變篇 第五統」에서 체질진단·체질병증의 四象人辨證을 擴充할 수 있었다. 또한 「病變篇 第五統」은 【東醫壽世保元 ; 四象人辨證論】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四象人辨證은 四象人素症과 體質診斷 및 體質病證을 위한 辨證을 포괄한 개념이다.
3. 「病變篇 第五統」의 心身, 外感, 形證, 執證, 夢泄, 泄瀉, 瘡疾 등에서 四象人의 常證을 논하여 體質診斷의 辨證을 설명하였다.

4. 「病變篇 第五統」의 面色, 膚肉, 汗, 完實無病, 終非危·輕症 등에서 사상인의 질병에 대한 有無(有病證)를 논하여 體質病證의 辨證을 설명하였다.
5. 「病變篇 第五統」의 急病欲占其吉凶과 腸氣虛弱, 吉祥證과 凶證, 安證(吉證)과 燥症(陷證), 出氣, 雖重終效, 寢眠呼吸, 喜飲冷水, 大小便滑利 등에서 사상인의 질병에 대한 吉凶證을 논하여 體質病證의 辨證을 설명하였다.
6. 「病變篇 第五統」의 小便과 面色, 上升之症과 下降之症에서 사상인의 질병에 대한 進退證을 논하여 體質病證의 辨證을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四象人 辨證之要의 내용과 원리를 더욱 확충하면 임상에서 '사상인진단·치료의 지침'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參考文獻

1. 이수경외 1.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의 서지학적 연구. 사상학회지 1999;11(1);63-
2. 송일병. 동무공의 학문과 철학사상.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7.
3. 김선민의 1.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에서의 양생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101-9.
4. 옥윤영외 1. 『사상의학초본권』과 『동의수세보원』 초판본의 비교를 통한 사상방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43-55.
5. 김선민의 1. 『동의수세보원사상초본권』과 『동무유고』에서의 素證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67-77.

6.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1997:470,482-483,490-491,495-496.
7. 이제마.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경희대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2000:8,13,16-20.
8. 이제마. 東醫壽世保元(甲午本). 사상체질의학회. 2001:32-38,47-49,54-56,60-62.
9. 이제마. 東醫壽世保元(七版). 윤완중. 1972 : 125-132, 160-166, 181-186, 196-202.
10. 이제마. 格致藁. 한두정(덕흥인쇄소). 1940:5-9.
11. 이제마. 국역한의학대계(⑩東武遺稿). 해동의학사. 1999:158-168.
12. 허 준. 東醫寶鑑. 남산당. 1989 : 81, 83, 117, 126, 225, 341, 355.
13.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168.
14. 안상우. 한국의학자료집성Ⅱ(원문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 59-60.